

보도자료 1

 고용노동부		보도자료		<i>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</i>	
보도 일시	2023. 3. 15.(수) 10:30 2023. 3. 15.(수) 석간	배포 일시	2023. 3. 15.(수)		
담당 부서	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	책임자	과 장	박종일 (044-202-7307)	
		담당자	사무관	김신영 (044-202-7318)	

산업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첫 번째 인력양성 민·관 협력 사례

- 고용노동부 · 현대자동차 · 블루핸즈,
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-

고용노동부, 현대자동차 및 블루핸즈는 현대자동차 고양 하이테크센터에서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업무협약식 개요

- ◆ 일시 / 장소 : '23. 3. 15.(수) 10:30 ~ 11:30 / 현대자동차 고양 하이테크센터(경기 고양시)
- ◆ 주요 참석자 :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, 유원하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장, 정상빈 현대자동차 정책개발실장, 이교열 전국 현대자동차 종합블루핸즈 정비가맹점 연합회장, 박민수 현대자동차 정비가맹점 협동조합 연합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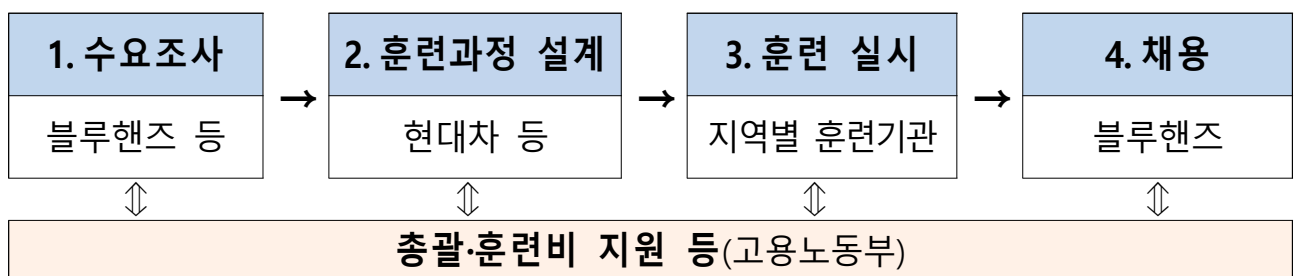
자동차 산업은 기존 내연기관에서 수소·전기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중이다. 이에 따라 친환경차 정비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정비인력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정비업체들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및 블루핸즈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,

지역별 친환경차 정비인력 수요조사부터 훈련 실시, 훈련수료생에 대한 채용까지 친환경차 정비인력 전 과정에서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, '23년 훈련목표인원은 2,000명이다.

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훈련과정 전반을 총괄하면서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훈련과정의 설계 및 훈련 교·강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블루핸즈는 지역별 채용수요 파악 및 훈련수료생을 채용하는 역할을 맡아서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.

<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 흐름도>



특히,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, 현대자동차 및 블루핸즈 각자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첫 번째 모범적인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.

고용노동부는 '22년부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재직자, 실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「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」을 실시하고 있으며, 동 사업을 활용하여 훈련과정을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.

「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」 개요

- ◆ (목적)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재직자,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·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과정 공급, 훈련비 지원 등
- ◆ (예산 / 훈련인원) 766억원 / 2만명 ('23년)
- ◆ (우대사항) ①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역별 수시심사 허용
 ② NCS 지원단가의 300%까지 훈련비 인정
 ③ 특별훈련수당(월 20만원) 추가 지급*(기존 훈련장려금 11.6만원)
 *육성산업·직종에 속하면서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대상

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“디지털·저탄소 등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, 기업이 필요한 직무역량이 시시각각 변하는 등 노동시장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, 직업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.”라고 강조하면서,

“이번 협약은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각자의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, 고용노동부도 함께 고민하고 적극 돕겠다.”라고 밝혔다.

한편, 유원하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장은 “고용노동부, 블루핸즈와의 함께 우수한 친환경차 정비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언급했다.

이교열 현대자동차 종합블루핸즈 정비가맹점 연합회장은 “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인력 양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.”라고 하였으며,

박민수 현대자동차 정비가맹점 협동조합 연합회장은 “자동차 정비는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정비인력이 더욱 고갈되고 있는 실정”이라고 언급하면서, “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나서서, 정비인력 양성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며, 훈련을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<참고>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개요



참 고

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개요

- (사업내용)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원 필요 산업의 재직자,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·전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 훈련 공급 등
- (예산·인원) 766억원·2만명('23년 기준)
- (지원대상)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
- (지원훈련) 종사자 및 산업계 등이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고용유지, 이·전직 등을 위해 희망하는 훈련수요에 기반한 훈련과정
- (우대사항) 신속한 공급·운영 위해 기존 내일배움카드 훈련 대비 우대
 - (규제완화) 기존의 중앙(직업능력심사평가원) 중심 훈련공급체계와는 별도로 운영기관(지역인자위 등)을 통한 수시 심사를 허용
 - (훈련비 인정 확대)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는 훈련비를 NCS 직종별 지원단가의 130%~300%까지 인정
 - (훈련수당 추가 지원) 일정 요건*을 충족하는 참여자에 대하여는 훈련장려금(월 11.6만원)과 별도로 특별훈련수당(월 20만원) 지급
 - * ①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역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직종의 훈련
 - ②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
 - (훈련비 전액 지원) 최초 1회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 본인부담 면제
- (추진체계) 「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」 사업에 따라 훈련과정 심사 등을 수행할 운영기관(지역인자위 등)을 공모 및 선정
 - 운영기관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직업훈련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지원대상산업직종* 및 육성산업직종**을 선정
 - * 재직자 및 실업자 등의 고용유지 및 이·전직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산업 분야
 - ** 4차 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등에 따라 지역에서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 직종으로, 지원대상산업 재직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인력수급이 필요한 직종
 - 해당 업계 종사자,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수요를 발굴하고, 그를 반영한 직업훈련을 운영하려는 훈련기관 및 과정 심사